

# 제주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관건은 국비 확보

### 자치경찰,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 2034년까지 824억 소요... 재원조달 방안 다각화 필수 "중앙부처 R&D 국비 확보 총력... 교통체계 개선 주력"

제주자치경찰단이 2034년까지 인공지능(AD)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고도화 등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예고한 가운데, 사업의 성패는 국비 확보에 달려있으며 향후 중앙부처별 재원조달방안 다각화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5~34년 제주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5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 교통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제주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예산은 연간 82억씩 향후 10년간 824억원(국비 354억5700만원, 도비 469억42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간별 예산은 단기 130억8400만원, 중기 277억9700만원, 장기 415억1800만원 등이다.

문제는 매년 감소 추세의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4년간 지원한 ITS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1년 1390억원, 2022년 1330억원, 2023년 1020억원, 2024년 54억원으로 3년새 96%가량 줄었다. 때문에 제주자치경찰단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사업별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통한 지방비 부담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별 재원조달방안을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처별로 자원 조달을 위해 ▷국토부는 모빌리티 사업(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스마트시티(거점형·강소형 솔루션) ▷행안부는 안전리빙딩 공모사업,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혁신성과 확산사업 ▷과기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광조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해 마련한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중앙부처 R&D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내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 단계 도약하는 제주 교통체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단기 계획(2025~26년)으로 기존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확대와 도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대·고도화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대·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중기(2027~29년)에는 초기 도입 서비스의 확장을 통한 서비스 양적 확대와 함께 기존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신규 서비스 도출 및 통합·개방 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2030~34년)에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 호텔서 동포 살인 중국인 일당 '계획 범죄' 제주서부경찰서, 30대 여성 A씨 등 구속 송치

호텔에서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 일당이 피해자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와 B씨, 30대 남성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 내 한 호텔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와 공모해 D씨에게서 현금과 카드 노획 등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환전을 해달라며 본인의

객실로 D씨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여 분만에 살해했다.

이후 A씨는 D씨의 돈과 카지노 칩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객실 문 앞에 뒀고, 약 2분만에 B씨와 C씨가 이를 가져갔다. B씨와 C씨는 해당 호텔 내 다른 객실에서 돈을 환전한 뒤 나눠가지고는 출국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들의 범행은 오후 5시10분쯤 D씨의 지인이 "가상화폐를 사러가더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고 접수 5분 뒤에는 A씨가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를 하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김재현기자

# 서귀포시,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많다

### 지난해 3919건 발생... 제주시 2817건·서귀포 1102건 사망자 제주시 26명·서귀포시 23명... 건수 대비 많아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 인명피해를 줄일 뚝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서귀포시가 제주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19건이다.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제주시에서 2817건, 서귀포시에서 1102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제주시 26명, 서귀포시 23명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갑절 이상 많은데 사망자 수는 별 차이가 없다.

최근 10년(2014~2024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기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제주시는 2015년(58명), 서귀포시는 2018년(40명)이었다.

제주시 지역에선 2021년 사망자 수가 34명으로 40명 아래로 줄어든 후 2022년 39명으로 이어 2023년

(25명)과 2024년(26명)에는 연속 30명 아래로 감소했다. 서귀포시는 사망자 수가 2021년 18명, 2022년 14명까지 줄어든 적도 있지만 2023년에는 2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차 대 사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47.8%를 차지했다. 보행 중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등이 많았다는 얘기가. 차 대 차와 차량 단독 사망자는 각각 26.1%(6명)였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서귀포시는 사고 발생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교통시설물 2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벌이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횡단보도 조명등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할 것"이라며 "또 신규로 교통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연안안전지킴이 18명 모집 제주해경, 26~내달 1일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연안 안전 사각지대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8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제주 연안 위험구역 9개소(용담포구~도두항, 김녕해수욕장~김녕항, 월정항~코난해변, 월령포구, 판포포구, 보복포구~구두미포구, 법환포구~두머니물공원, 하도해안~종달항, 모슬포항~하모해변)에 각 2명씩 총 18명이 배치된다.

지킴이들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일 17(평일 13일·주말 4일)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간대에 물때·안전수칙 등 정보 안내,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 시설물 점검,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해경청 해양안전과 또는 가까운 지역 해경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기자



안전운행 위협하는 포트홀 5일 제주 산간도로인 녹산로에 해빙기를 맞아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희만기자

# 서귀포서 8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서귀포시에서 8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

31분쯤 동흥동 향토오일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A씨가 7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

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 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포토묘

화분묘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토묘 >**

도내 최대 <포토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토묘 보조사업 가능**

종자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